



### 존경하는 선교동역자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프리카 스와질란드에서 문안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그동안도 선교동역자님 가정과 성기시는 교회가 평안하시리라 믿고 기도합니다. 이곳 저희들은 계속하여 아프리카 선교사역에 충실하고 있습니다.  
중남부 아프리카의 겨울이 금년에는 늦추위가 심해서 얼마 전부터 매우 쌀쌀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요즘 스와질란드는 교원노조와 공무원노조가 연합하여 임금인상을 위한 파업을 하며 학생들은 몇 주간 집에서 머물고 관공서는 대부분이 문을 닫은 상태에 있습니다. 스와지 국왕은 일만 이천 명의 주민 국회를 열고 국가의 전반적인 문제를 논의하여 공개적으로 발표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스와지 사람들은 원래 순수하고 예절이 바른데 4.5%의 교사월급인상 요구하는 데는 목소리를 크게 높이고 있는 것을 보면서 돈을 더 가지고자 하는 인생들의 욕심은 세계적인 경향이 아닌가 생각을 해 봤습니다.



시셀리니 우물공사(스와지문교부장관과 함께)

### 스와질란드선교



은둔자초등학교 헌당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통하여 스와질란드에 17교회를 개척하셔서 성기고 있습니다. 카툰자지역주민들을 위하여 감리교회 서울연회 여선교회에서 초등학교를 건축하고 돈암교회(천인호목사)에서 유치원을 건축하고 우물을 파서 6월초에 헌당예배를 드렸습니다. 헌당예배에는 만지니지역 교육장과 목회자들, 지역주민 대표들이 참석하였습니다. 같은 날 서강교회(여우훈목사)에서 시강게니 주민들을 위하여 우물을 파는 공사를 지원하여 그곳에서 감사예배를 드렸습니다.

아프리카대륙선교회는 이문균선교사를 통하여 재정적인 후원을 받아 2011년 Mpaka 지역 주민들에게 우물 파는 공사를 해서 깨끗한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한국의 박현숙집사님이 김희상선교사를 통하여 재정적인 후원을 하여 시셀웨니지방에 댐을 만들어 산위에서 내려오는 물을 받아 500여명의 주민들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성실교회(김영복목사)의 지원으로 Mbabane에 고아원을 건축하여 34명의 어린이들을 돕고 있으며 평화의료재단(조기성대사)의 지원을 받아 고아네지방에 작은 병원을 건축하여 매년 20000여명의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으며 심재식목사님(신창동교회 원로목사)의 후원을 받아 시포코시니지방에 작은 병원을 건축하여 매월 18,000여명의 환자들을 치료하며 복음전파사역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 스와질란드 기독대학 설립

하나님의 은혜로 2000여명의 공동설립자(개미군단)들의 후원으로 행정동(본관)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대학병원공사를 위하여 2/3 정도의 토목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2012년 2월부터 남아공화국의 프레토리아 의과대학과 공동으로 SCU 가정의학과를 개설하여 20여명의 간호사들과 의사들이 등록하여 강의를 듣고 있으며 정신의학과는 3월부터 등록하여 강의를 시작해서 22명의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2013년 2월부터 의과대학 본과학생 20여명과 정보통신대학, 간호대학, 약학대학, 보건대학, 예술대학을 시작하기 위하여 신문광고를 내어 학생들을 면접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하면서 일반 대학이 아닌 의과대학을 시작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저희들은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들을 통하여 스와질란드에 역사적인 의과대학을 설립하시고 있습니다.



은둔자초등학교 완공모습



사임크리스찬교회 이순자가족기념강당 예배



SCU 행정동 공사 전경



SCU  
대학설립위원회 모임



왕비(람브기사)  
SCU 건축현장방문 후 지원연설



SCU 제7차 워킹그룹모임

### 모잠비크 선교

모잠비크 남부지방 목회자 선교대회가 7월 30일부터 8월 4일까지 마푸토의 마틀라교회에서 100여명 ACM 목회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있었는데 대회기간 중 13명의 새로운 목사 안수식이 있었습니다.

저는 주일예배에서 주님의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100여 명의 목회자들과 300여 명의 교인들이 모인가운데 설교를 했는데 목회자들의 사역은 영적전쟁이기 때문에 순탄하지 않아서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 받아 능력 있는 복음전파자가 되어 달라고 당부하였습니다. 모잠비크는 296 교회가 개척되어 있는데 5그룹의 지도자들이 독립적으로 교회를 개척하여 섬기고 있습니다. 매년 5그룹이 별도로 선교대회를 해 왔는데 내년엔 300여 목회자들이 마틀라의 소망중고등학교에서 1차 ACM 모잠비크 교역자 선교대회를 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현재 모잠비크에는 임마누엘신학교 2회 졸업생인 자이메목사가 총회장으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모잠비크는 소망중고등학교옆에 의정부소망교회(이영근 목사)의 재정후원으로 신학교를 설립할 예정입니다. 현재 16명의 신학생들이 소망중고등학교 교실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마시시지방에 목회자를 위한 신학교를 큰사랑교회(김한수목사)에서 건축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시시지방은 수도인 마푸토에서 자동차로 8시간 거리에 있는데 그 지역에서 사역하는 목회자중 소수의 교역자들만 신학을 했고 약 95%이상의 목회자들이 신학을 하지 않아서 성경공부와 목회학을 중점적으로 가르칠 예정입니다.



소망중고등학교 학생들

**스와질란드, 남아공화국, 모잠비크의 교회건축사역**

스와질란드의 마돈사참빛교회와 돈도지참빛교회가 완공되어 5월 5일과 6일에 안양참빛교회의 담임목사인 홍순안목사님과 재정후원자인 김금곤장로님이 참석한 가운데 은혜로운 헌당예배를 드렸습니다. 남아공화국의 벨스프리트지방에 빛으로 교회의 후원으로 공사가 완공되어 담임이신 한상용목사내외분이 헌당예배를 인도 하였습니다.



돈도지 참빛교회 헌당예배



벨스프리트  
포티버 침례교회 전경 및 헌당예배

이헌목사님이 섬기는 예본교회가 건축 중인 사사이에본교회가 완공되어 페인트칠을 준비하던 중 태풍이 불어와 함석지붕이 날아갔었는데 스페인 바로셀로나 한인 순복음교회의 담임이며 기하성구주연합회 회장이신 최원철목사님이 헌금하여 주어 철재를 사용하여 지붕구조를 만들어 공사를 거의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이해준형제(영어연수생)가족들의 헌금으로 마시아지방에 건축 중이던 교회가 완공되었습니다.



마시아 교회



마차바 신광 지교회

권오성목사님이 섬기는 인천큰빛교회의 손가연집사님과 의성믿음의집 이경자사모님의 후원으로 모잠비크 마홀라네 지방에 건축 중이던 교회가 완공되었습니다. 안봉웅목사님이 섬기는 의정부신광교회의 후원으로 모잠비크의 마차바지방에 건축 중이던 마차바신광지교회 건축이 지연되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확인을 요청한

결과 150여명을 수용할 크기의 교회도면과 건축비를 제공하였는데 매 주일 500여명(어린이포함)이 예배에 참석하여 부득이 교회설계를 변경하여 교인 모두가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큰 규모로 건축하다가 건축비의 부족으로 공사가 중단되어 있었습니다. 담임목회자의 말에 의하면 성도들이 건축비를 매월 헌금하여 건축을 마무리 하겠다고 말하는데 이들의 방법으로 하면 앞으로 2년도 넘게 걸려야 교회당을 완공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모잠비크 건축을 담당하고 있는 이문균 선교사에게 정확한 나머지 공사견적을 받아 오도록 요청하였습니다.

김금호목사님이 섬기는 장흥안디옥교회 후원으로 건축 중인 안디옥목회자 영성훈련원과 중학교 기숙사 건축이 공사를 시작하였다가 지방정부 교육청과 기숙사운영비 지원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몇 개월 동안 공사를 중단하였는데 이문제가 원만히 해결되면 9월중 다시 공사를 재개할 예정입니다.

### 임마누엘신학교사역

부학장으로 헌신하시는 민찬기선교사님이 운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사모님이 무릎을 많이 다치셔서 수술을 받은 후 몇 개월 동안 움직이지 못하시다가 이제는 조금씩 걸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은영선교사가 한국으로 귀국하고 미국 하와이에서 다민족문화 목회를 하던 송유진선교사가 신학교에 들어와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David형제가 학감을 사임하고 신학교를 완전히 떠났으며 임마누엘신학교 교수인 김희상 선교사는 캐나다에서 시민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민찬기 선교사님과 학생들의 수고로 금년에 마카다미아 나무의 열매를 처음으로 수확하여 약 100만원의 수입을 가져왔습니다.

앞으로 몇 년 후부터는 신학교 재정의 50%이상을 마카다미아 나무의 열매를 통하여 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순복음(대조동)교회의 아프리카 선교부에서 마카다미아 나무의 성장을 위하여 매월 물질을 후원하고 있어서 나무들이 빠른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춘선교사는 신학교의 재정의 어려운 문제를 보고 파송한 교회의 집사님가정에서 400만원을 후원받아 닭장을 만들어 400마리의 병아리를 구입하여 키우고 있는

데 모두 잘 자라서 요즘 신학생들의 식탁을 풍성하게 하고 있으며 일부는 판매할 예정입니다. 성원교회의 담임이신 황일상목사님이 매년마다 신학교를 방문하여 신학생들과 신학교가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양계장

「임마누엘 신학교」

마카데미아 농장

## 말라위선교

현광섭, 이연희 선교사가 섬기고 있는 말라위 ACM은 2012년 8월 24일부터 26일까지 브란타이어의 그린코너센터에 있는 선교센터본부 교회에서 800여명의 청년들을 초청하여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제목으로 집회를 가진다고 야수루총회장 목사님이 기도를 부탁해 왔습니다. 저희들은 이 집회기간 중 식사재료의 일부분인 1,000달러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롬바니목사는 말라위의 수도인 리롱웨, 치우고, 음탄디레지역에 3교회를 개척하였다고 이메일로 선교보고를 해 왔습니다.

## 콩고선교보고

콩고는 고웨목사가 ACM교회 총회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성원교회의 황일상목사님과 독일예향교회의 김익진목사님이 함께 콩고선교지를 방문하여 집회와 교역자세미나를 인도하여 교회지도자들의 목회활동을 지원해 왔습니다. 성원교회는 콩고에 여러 교회들을 건축하였고 루뭉바시 주의 공항 가까운 곳의 선교부지에 콩고성원 신학교 건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불어권인 콩고에 신학교가 세워져서 목회자를 양성하게 되면 콩고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ACM콩고사역을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프리카 원주민선교를 기도와 물질로 동참하여 중남부아프리카에서 하나님의 일이 크게 확대되도록 헌신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오며 선교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